

구약논단

제 15권 3호(통권 33집) 2009년 9월 30일

안 근조(호서대) 시편의 죄 관념 재고: 시 6, 102, 143편을 중심으로	87
본 논문은 일곱 편의 회개시 가운데 시 6, 102, 143편에서 드러난 죄를 연구한다. 구약성서의 죄-징벌의 도식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세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과의 관계성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고찰하고 있다. 세 시편은 죄에 대한 단편적 이해로부터 실존적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고 있다.	
Ahn, Keun-Jo A Reconsideration of the Concept of Sin in Psalms 6, 102, and 143	87

시편의 죄 관념 재고: 시 6, 102, 143편을 중심으로

안 근조 | 호서대

1. 들어가기

교회의 전통 가운데 회개시로 불리어진 7개의 시가 있다. 곧 시 6, 32, 38, 51, 102, 130, 그리고 143편이 그것이다. 이중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시 51편으로서 바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부제가 붙여진 시이다. 시 51편이 대표하듯이 이 회개시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면서, 용서하며 깨끗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내용이 그 주제를 이룬다. 그러나 이 7개의 시들 가운데 세 개의 시, 즉 시 6, 102, 그리고 143편에는 "죄"에 대한 명시적 고백이 발견되지 않으며, 심지어 "죄"라는 용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전통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회개시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히려 이 세 편의 시들은 오늘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시편 신앙에서의 죄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구약성서에서는 죄의 관념들을 명료하게 분류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단어를 중심으로 대체적으로 다음 네 가지 부류의 죄의 영역들이 부각된다. 1) 첫 번째, חַטָּאת(하타아/죄, sin), 또는 חַטָּאת(하타트)는 주로 과

역을 벗어난다는 의미를 내포함으로써 빛나간 행위(삿 20: 16)를 의미한다. 둘째, **יָיִף**(아본/허물, iniquity)이나 **חָטָא**(샤가/잘못하다, to err)은 바른 상태가 아니라 변형되고 왜곡된 상태를 의미한다. 셋째, **עָשָׂר**(라사/유죄, guilty of sin)나 **עָשָׂה**(아샤/범죄, offence)은 범죄로 인하여 행위자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עָשָׂה**(페사/반역, transgression)로서 상호 합의 사항에 대한 불이행, 또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²⁾을 뜻한다.

전통적인 회개시 가운데 32, 38, 51, 130편에서는 위에서 소개된 죄에 대한 단어들 나타나 있으며,³⁾ 시인은 그 죄들에 대한 회개 의식과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6, 102, 143편에서는 전혀 죄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은 시 6, 102, 143 편에서 나타난 죄와 회개의 관념을 재고하려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자들은 전통적인 세 편의 회개시로부터 어떠한 죄에 대한 관념을 전제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그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죄와 관련된 세 시편의 입장을 분석하여, 시편의 죄와 회개에 대한 의미를 신학적으로 새롭게 조명하려 한다. 끝으로 시편의 죄의 관념이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를 간략하게 제시하면서 결론에 이르려 한다. 단지 본 연구는 교회 전통에 의거하여, 소위 “회개시”라고 일컫는 일곱 편의 시에 논의를 집중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2. 기존의 연구와 신학적 이슈

1) 질병 치유를 위한 개인 탄원시(시 6편)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 6편을 “질병 치유를 위한 탄원시”로서 장르를 구분한다.⁴⁾ 시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또는 사회적인 위기 속에서 도움을 간구하는 시로서 소개된다.

1) 구 덕관, 「구약신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204-205쪽.

2) P. C. Craigie, *Psalms 1-50*. (Waco: Word, 1983), 266쪽.

3) 32: 1, 2, 5; 38: 4[3], 5[4], 19[18]; 51: 1, 4[2], 5[3], 7[5], 11[9], 15[13]; 130: 3, 8.

4) M. Dahood, *Psalms I 1-50*.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Inc., 1982), 38쪽; P. C. Craigie, *Psalms 1-50*, 91쪽; E. S. Gerstenberger, *Psalms Part 1 with an Introduction to Cultic Poetr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8), 62쪽; 함성국, 「시편 해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654쪽.

시인이 묘사하는 고통의 상황은 죄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즉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각의 배경에는 시인의 죄 성에 대한 인식이 깔려있다.⁵⁾ 무엇보다도 1절에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의 외침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였음을 상징하고 있다.⁶⁾ 또한 2절의 내용은 시인의 회개의 심정을 드러낸다고 본다⁷⁾: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며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더 나아가 모든 측면에서의 인간의 곤궁한 상황에 대한 토로는⁸⁾ 회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와 관련되어 있음을 논증한다.⁹⁾ 즉 인간의 율함과 오류성에 대한 고백은 궁극적인 존재자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끔 하기 때문이다.

시 6편의 해석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죄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쟁점이 있다. 하나는, 누군가에게 닥친 고통은 그 사람의 최악의 결과로서 주어진 징벌로 추론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한다.¹⁰⁾ 곧 죄-징벌 또는 고통-죄의 결과라는 도식이 시편의 죄에 대한 인식에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가의 쟁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고통의 상황에 대한 발설과 구원에 대한 간구 자체는 시인의 회개와 관련된 문제이다. 그렇다면 시인의 신뢰 고백과 구원 탄원에 있어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회개 의식과 죄의 고백이 반영되어 있는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고통스런 실존 극복을 위한 개인 탄원시(시 102편)

시 102편의 장르 구분은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다. 왜냐하면 시 102편 1-11절까지는 전통적인 개인 탄원시의 형식을 취하나, 시 102편 12-22절은 공동체의 기도문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찬양의 요

5) A. Weiser, *The Psalms*, tr. H. Hartwel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2), 130쪽.

6) S. Mowinckel, *The Psalms in Israel's Worship*, tr. D. R. Ap-Thomas, (Sheffield: JSOT Press, 1992), 12쪽.

7) P. C. Craigie, *Psalms 1-50*, 91쪽.

8) 육체적 약함(2절), 영혼의 떨림(3절), 죽음에 가까움(5절), 대적의 위협(7, 10절) 등.

9) J. C. McCann, Jr., *A Theological Introduction to the Book of Psalms: The Psalms as Torah*,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704쪽.

10) S. Mowinckel, *The Psalms*, 12쪽.

소(시 102: 19-22, 24-27)와 제의 요소(시 102: 13-14), 그리고 지혜 요소(시 102: 3, 11, 25-27) 등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일찍이 모빙켈은 시 102편이 **개인 탄원시**를 공동 기도문에 접맥시킨 것으로 보았으며, 게르스텐베르거 또한 포로 시대 이후의 회중들이 개인 탄원시를 필요에 의해 공동 기도문에 사용하였기에 본 시를 양자의 연합으로 본다.¹¹⁾ 다후드의 경우 제왕 시로 구분하여 시편의 화자를 왕으로 주장한다. 왜냐하면 다른 제왕 시들과 유사한 단어들과 표현들이¹²⁾ 본문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다.¹³⁾ 한편 앤더슨은 본 시의 지혜 시적 요소를 강조하며,¹⁴⁾ 바이저는 개인 탄원시로 보기는 하되 제의 배경을 전제로 하여 개인적이고 공동적인 요소들을 통합하여 해석하려 한다.¹⁵⁾

그러나 대다수의 학자들은 개인 탄원시로 본다.¹⁶⁾ 그 이유는 공동체의 기도문인 시 102편 12-22절을 개인 탄원시의 신뢰 확신 부분으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포로 시대 이후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신뢰와 찬양은 미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투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¹⁷⁾ 물론, 본 시의 형성 과정 가운데 공동의 기도문이 합성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본문의 표제어로부터 시 102편 1-12절의 개인 탄원시의 전개, 그리고 다시금 공동 기도문 후의 시 102편 23-24절의 개인적 간구로의 회귀는 독자로 하여금 개인 탄원시로 본문을 읽도록 인도한다.

시 6편과 마찬가지로 시 102편은 시인의 고통스러운 현실의 원인이 하나님의 분노로 인함임을 고백한다(시 102: 9-10):

-
- 11) E. S. Gerstenberger, *Psalms Part 2 and Lamentations*.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1), 214쪽.
 12) 예를 들면, 표제어 “마음이 상하여”는 제왕 시인 61장 2절의 “내 마음이 약해질 때”와 같은 단어 (כָּבַד)이며, 102: 23에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는 또한 제왕 시인 89: 45의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의 표현과 동일하다.
 13) M. Dahood, *Psalms III 101-150*.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Inc., 1983), 10쪽; cf. J. C. McCann, Jr., *The Book of Psalms*, 1086.
 14) B. W. Anderson, *Out of the Depths: The Psalms Speak for Us Toda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0), 87쪽.
 15) A. Weiser, *The Psalms*, 652쪽.
 16) H.-J. Kraus, *Psalme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864-65쪽; C. Westermann, *The Praise of God in the Psalms*. tr. K. R. Crim, (Richmond: John Knox Press, 1965), 66-75쪽; L. C. Allen, *Psalms 101-150*. (Waco: Word, 1983), 13쪽; K 사이볼트, 「시편입문」 (이 군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134쪽.
 17) L. C. Allen, *Psalms 101-150*, 13쪽.

“나는 재를 양식 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¹⁸⁾

그리고 이 고백 가운데에는 “재와 눈물”이 동반된 회개의 몸부림이 암시되어 있다.¹⁹⁾ 이러한 시인의 회개의 심정은 이미 시 102편 2절에서 묘사되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²⁰⁾

더불어 인간의 고통스럽고 쓸쓸한 실존에 대한 묘사는 시 6편의 표현보다도 더 뛰어나다(시 102: 3-8). 이에 상응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한층 더 고양되어 나타난다(시 102: 12-13, 17-22, 25-27).

죄와 관련된 문제로서 여전히 죄-징벌의 도식이 본문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시 6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구체적인 죄의 항목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과연 시인이 당한 불행의 현실을 반드시 죄의 결과로 판단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한 가지 시 102편에서 독특한 것은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 관계에 충실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다²¹⁾: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시 102: 13).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시 102: 12, 24, 26-27)과 더불어 인간의 고통스러운 현실의 해결, 즉 죄의 문제 해결의 바탕이 될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의 본성이 죄의 문제 해결과 어떤 관련

18) 본 글에서 인용되는 성경 본문은 개역한글판을 따르고 있다.

19) L. C. Allen, *Psalms 101-150*, 14쪽.

20) 앞선 6장 2절과 그 본질적인 간구의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즉 현재 당친 고통의 현실을 죄의 결과로 보고 그 현실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하여 구원을 간구하는 사실 자체가 죄에 대한 고백으로 볼 수 있다.

21) L. C. Allen, *Psalms 101-150*, 15쪽.

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3)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한 개인 탄원시(시 143편)

시 143편은 총 7편의 회개시 중 마지막 편이다. 원수와 죽음의 위협 아래 놓여진 시인의 간절한 구원 간구가 담긴 개인 탄원시이다. 시 143편 6절의 *셀라*로 볼 때, 시 143편 1-6절과 7-12절로 나뉘어 있다가 현재의 형태로 합쳐진 것으로 보인다.²²⁾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자의 암흑 속의 세계로부터의 구원 간구와 후자의 무덤에 내려가는 자의 구원 간구가 하나로서 통합된 탄원 기도를 형성한다.

앞선 시 6편과 102편과는 다르게 본 시에서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의로움 없음”, 즉 죄 성을 지적한다²³⁾: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143: 2).

그러나 이것이 인간 일반의 실존적 고통의 상황을 대변한다고 했을 때, 시 143편은 앞선 시들과 여전히 같은 맥락에 서 있다. 즉 인간 존재의 실체에 대한 진솔한 발견이 전적인 하나님 의지에 이르는 통로로써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인의 반복되는 구원 간구(시 143: 1-2, 7-11)에는 이미 인간의 연약함과 더불어 인간 자신의 구원 불가능성에 대한 고백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시인은 단순한 고통의 상황에 대한 해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통한 새로운 지평을 기원하고 있다(시 143: 10).²⁴⁾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은 마지막 구절이다: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시 143: 12b).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악인들에(시 143: 12) 비하여 시인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고백처럼 들려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선 2

22) M. Dahood, *Psalms III 101-150*, 322쪽.

23) A. Weiser, *The Psalms*, 818쪽.

24) E. S. Gerstenberger, *Psalms Part 2*, 425쪽.

절의 “의로움 없음”에 대한 고백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시 6편에서도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시 143: 9)고 고백하고 있으며, 시 102편에서도 “주의 종들과 자손”(시 143: 28)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탄원 기도의 끝에 나오는 “주의 종”의 선포는 자신의 기도가 들으심을 받았다는 확신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나 맥칸은 이미 본문 시 143편 8절에 시인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에 대한 묘사를 통해 하나님과 시인 사이의 특별한 관계성이 나타나 있음을 시사한다.²⁵⁾ 따라서 회개시를 포함한 탄원시들은 하나님과의 일정한 관계를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관계의 어떠함이 죄인 됨의 상태와 결부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시 143편에서는 죄-징벌에 대한 도식이 부각되지는 않는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시 143편 2절에서와 같이 인생 일반에 대한 묵상이 선포됨으로써 개인적 죄의 결과로서의 하나님의 심판 개념이 상대적으로 표현될 길이 막혀 있다. 둘째, 고통의 이유가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시작된 것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시 143: 3, 9, 12). 그렇다면 탄원시에서 고통의 현실 토로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 일괄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탄원시의 구원 간구에 전제된 동기로서 회개 의식이나 죄의 고백 이외의 사정을 전제할 수 있다. 시 143편이 죄론 논의에 한 가지 더 추가해 준 문제는 바로 탄원시 저자들에게 나타나는 죄의 고백과 의로움을 동시에 주장하는 상호 배치되는 입장이다. 혼돈의 상황 속에서 죄인됨을 고백하는 탄식자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선언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죄와 의로움의 관계를 시편의 죄론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신학적 과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상의 간략한 개괄과 문제 제기를 통하여 우리는 시편의 죄 관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신학적 이슈들을 발견할 수 있다:

1. 죄-징벌의 관계
2. 구원 간구의 동기(회개 의식과 죄의 고백의 여부)
3. 하나님과 기도자의 관계

25) J. C. McCann, Jr., *The Book of Psalms*, 1252; cf. L. C. Allen, *Psalms 101-150*, 285쪽.

4. 죄 있음의 고백과 죄 없음 주장의 대조.

아래에서 행해지는 시들의 분석은 이 네 가지 신학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해질 것이다. 다분히 신학적 작업이기에 주어진 과제에 해당하는 한에서 본문 주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3. 회개시 분석

1) 시 6편

먼저, 시 6편을 보면 하나님의 노로 말미암아 시인을 징계하지 말아달라는 간구로 첫 머리를 열고 있다(시 6: 1).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서도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다만 지금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견책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시인의 비참한 상황만이 절절히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시 6: 2-3, 6-7). 하지만 시인의 간구는 단지 절망 가운데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를 들으셔서 모든 원수가 물러가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되리라고 확신하는 가운데 시를 맺고 있다(시 6: 8-10).

열핏 보면, 시 6편은 회개의 시라고 칭하기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한 성도가 구원을 갈망하며 드리는 탄원 기도로 명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왜냐하면 시인의 어떠한 범죄 사실도 고백되지 않고 있으며, 더군다나 그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간구 또한 없기 때문이다. 4절에서 나타나듯이 이 시인의 주된 소원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나를 구원하소서”이다. 물론 시인이 처한 상황이 처음부터 최악에 빠져 있음을 전제하기에 아무런 죄에 대한 언급이 없을 수도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자체가 죄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간구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본문으로부터 도출된 해석(exegesis)이라기보다는 회개라는 주제를 본문에 임의적으로 부과한 임의적 해석(eisegesis)의 위험이 따른다.

죄와 징벌의 관계성에 대하여 시 6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단지 어떠한 이유에서건 하나님이 시인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황만이 부각된다. 그 상황은 시인에게 있어서는 “죽음”과 같은 고통과 슬픔이다(시 6: 5-7). 탄원자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제 떠나 있는 하나님의 “돌아옴”이다. 그것이 시인에게는 구원이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חַסֵּד)으로 나를 구원하소서”(시 6: 4).

일반적으로 시편 탄원사에서 등장하는 고통받는 현실의 원인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님, 원수, 그리고 자신.²⁶⁾ 시 6편의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의 분노 또는 떠나가심이지, 시인 자신의 죄의 결과는 아니다.²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아옴과 구원을 간구하는 시인의 태도에는 회개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구체적인 죄의 고백은 여전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말이다. 모방켈은 그 이유를 제의 배경에서 찾는다. 일반적인 예배 상황에서 사용되는 시이기에 특정한 죄목들을 표현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²⁸⁾

정리하면, 시 6편의 간구는 구체적인 범죄의 결과보다는 실존적인 인간의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인하여 위협에 노출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을 새롭게 회복하기 위한 부르짖음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 부르짖음은 응답되었으며(시 6: 8-10), 그 응답의 근거는 하나님과 시인 사이에 허락된 하나님의 사랑(חַסֵּד)이다(시 6: 4).

2) 시 102편

시 102편에는 처음 두 절에서 나타나듯 시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달라는 탄원이 담겨 있다(시 102: 1-2). 이어 그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는 시인의 괴로운 날들의 형편이 장장 아홉 절에 걸쳐서 열거되고 있다(시 102: 3-11). 시인이 당하는 그 고통의 원인이 바로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시 102: 10, 23)고 탄식하고 있는 장면은 앞선 시 6편의 저자의 상황과 같음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화난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다. 그저 시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기대하며 당신의 종들의 자손을 마침내 구원하시리라는 신뢰의 간구를 드리고 있다(시 102: 12-22, 24-28).

26) Ph. S. Johnston, “The Psalms and Distress,” D. Firth/Ph. S. Johnston (eds.), *Interpreting the Psalms: Issues and Approaches*,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05), 74-78쪽.

27) 몇몇 시들은 직접적으로 고통의 현실과 자신의 죄의 인과성을 묘사한다: 32: 3-5; 38: 3; 39: 8-10; 41: 4.

28) S. Mowinckel, *The Psalms*, 14쪽.

시 102편 역시 일반적으로 회개의 시로 보기에는 죄에 대한 고백과 용서를 위한 간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²⁹⁾ 대신에 특이할 만한 사실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묵상과 찬양이 장편의 신뢰 시로 강조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시 102: 12-22, 24-28).³⁰⁾ 그리고 그 주제는 바로 사랑과 해방의 하나님이다.³¹⁾ 바로 이 사랑의 하나님의 본성을 의지하여, 시인은 현재의 고통의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 6편의 저자 또한 그의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אהבה)에 두고 있는 점과 일치하고 있다.

죄의 문제와 관련하여 시 102편은 더욱 근원적인 인간의 형편을 드러내 준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극명하게 대조되는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시편에서 강조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의 재능과 능력 그리고 전쟁의 무기들은 그 힘을 잃는다. 인간은 가치 없는 존재이다.”³²⁾ 따라서 이곳에서는 구체적인 죄목에 대한 결과로서 고통의 현실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인간 실존의 모습 자체가 어려움이다. 따라서 시 102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은 죄인이 아니라 “그림자”와 같은 인생(시 102: 11), “빈궁한 자”(시 102: 17), “갈힌 자”(시 102: 20)이다. 사실상 시 102편이 들어있는 제 4집의 메시지 중 하나는 인간이 처한 상황(*conditio humana*)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 102편은 “현실로 다가온 가난과 인생의 종말 앞에 선 인간의 연약함과 무상함”(시 102: 4-12)이 하나님의 영원성과 대조(시 102: 13, 25, 27)되어 잘 표현된다.³³⁾ 여기에서 드러지는 구원의 간구는 회개 의식이나 죄의 고백의 발로라기보다는 무상한 인생으로부터의 근원적 탈출에 대한 바람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호와의 종들(시 102: 14, 28)

29) LeAnn Snow Flesher, "Sin and the Psalms," *The Living Pulpit* 8 (1999), 12쪽.
 30) 게르스텐베르거는 이 부분을 공동체의 기도문으로 본다: Erhard S. Gerstenberger, *Psalms Part 2*, 210쪽. 그러나 이 기도문의 주요 사상은 주의 종들과 시온에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이며 대부분의 학자들은 개인 탄원시의 한 부분으로서 취급하는 데 이론이 없다: Leslie C. Allen, *Psalms 101-150*, 12-13쪽.
 31) “공홀히 여기시는(리갸) 하나님(102: 13); “갈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 하시는(파타흐) 하나님(102: 20)
 32) H.-J. Kraus, *Theology of the Psalms*, tr. Keith Crim,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6), 144쪽.
 33) 정 현진, “시편 제 4집에서 본 시편 102편: 믿음으로 찾아낸 허무한 인생과 충만한 인생의 균형,” 김 영일 등, 「시편 우리 영혼의 해부학」 (서울: 한울출판사, 2006), 211쪽.

과 맺은 하나님의 사랑(시 102: 13-16)에 대한 관계 회복의 간구가 놓여 있다. 메이스에 의하면 시의 탄원자가 부르짖는 간구의 배경에는 구체적인 개인의 고통의 정황이나 공동체의 예배의 정황보다 주 하나님과 주의 종의 관계성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³⁴⁾

정리하면, 시 102편은 죄악된 본성으로 인한 고통의 상황이라기보다는 덧없는 세월을 사는 인생에 대한 근원적 반성이 반영된 시이다. 특히 “내 날이 연기같이”(시 102: 3),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시 102: 11),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시 102: 23) 등의 반성은 현자의 가르침에 항상 등장하는 표현들이다.³⁵⁾ 요동하는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성이다(시 102: 12-13).³⁶⁾ 탄원자의 구원 간구의 동기는 인간 실존의 미약함이며, 구원 간구의 근거는 약속 성취와 영원성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곧 헤세드(חֶסֶד)에 있다.

3) 시 143편

시 143편은 앞선 두 편의 시들과 유사한 주제와 구조를 이룬다. 시 102편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143편도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달라고 하는 간구이다(시 143: 1). 또한 시 6편과 같이 시인을 심판치 말아 달라는 소원 또한 아뢰고 있다(시 143: 2). 시인의 참담한 상황을 아뢰는 구절들과(시 143: 3-4),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시인을 구원하여 최후 승리를 보장해 주시리라고 하는 확신의 기도가(시 143: 10-12) 그 구조상 앞선 시들과 공통되는 점이다.

그러나 회개시와의 연관성을 생각해 본다면,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시 143편은 위의 다른 시편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근본적 죄성에 대한 언급이 한 구절 등장한다. 그것은 시 143편 2절 후반절에서 지적하는 바,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이다. 즉 시인 개인의 특별한 범죄에 대한 토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인간 일반의 보편적인 불의함의 현실은 언급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34) J. L. Mays, *The Lord Reigns: Theological Handbook to the Psalm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29쪽 이하.

35) B. W. Anderson, *Out of the Depths*, 86쪽.

36)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이는 전능자 앞에 선 인간 존재의 일반적 상태에 대한 설명이기에, 그 이상의 특정한 죄나 회개의 주제와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앞서 시 6편과 102편은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의 “인자하심”(יְרֻחַם הַשֵּׁם) 즉 사랑의 본성에 두고 있는 것에 비하여, 시 143편은 하나님의 “의로우심”(יְרַחֵם הַשֵּׁם) 즉 정의에 두고 있는 사실이다:

“주의 진실(יְשֻׁרֵי הַשֵּׁם)에 무나)과 의(יְרַחֵם הַשֵּׁם)로 내게 응답하소서”(시 143: 1b),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11b).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각각 그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그 기능은 한결같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본 시에서 죄-징벌의 관계는 성립이 안 되며, 구원 간구의 동기는 어떠한 회개 의식이나 죄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악인으로 인한 고통의 상황과 더 나아가 이것으로 대표되는 인간 실존의 연약함이다. 시인과 기도자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다³⁷⁾: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시 143: 12).

게르스텐베르거는 특히 본 시에서 하나님과 탄원자의 관계성이 강조됨을 언급하면서, 시 전체가 하나님과의 연대감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고 주장한다.³⁸⁾ 이를 뒷받침 할 만한 구절이 많이 등장한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시 143: 2a),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5a), “주는 나의 하나님 이시니”(10a), “여호와와 이름의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11a).

따라서 시인의 간구는 주의 얼굴의 일식 현상(시 143: 7b)으로부터

37) L. C. Allen, *Psalms 101-150*, 285쪽.

38) E. S. Gerstenberger, *Psalms Part 2*, 425-426쪽.

아침 햇살과³⁹⁾ 같이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의 삶으로 인도됨을 소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기되는 한 가지 문제는 본 시편의 기도자는 인생 일반에 대하여는 “의로움 없음”(시 143: 2b), 곧 근본적 죄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본인 자신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가운데 오히려 의로운 자임을 간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반복되는 자기 정체성이 “주의 종”으로 되어 있으며, 심지어 읍과 같이 고난의 상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불평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
 니이다”(시 143: 4).

더군다나 이 시인은 읍과 같이 원수들(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다(시 143: 3, 9, 12).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의식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개인 탄원시의 시인들은 종종 주장한다.⁴⁰⁾ 일곱 편의 전통적 회개시 가운데 하나인 시 143편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표현이 나왔다는 것은 흥미롭다. 개인 탄원시 가운데 시 7, 17, 26편 등의 시인들은 읍처럼 분명하게 자신들의 무고함을 주장한다.⁴¹⁾ 실제로 시편 전체에서 범죄 한 사실의 인정으로 인한 회개의 시보다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결백함의 시가 더욱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에,⁴²⁾ 시편은 교리적 죄의 이해보다는 인간학적 실존의 이해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게 된다.⁴³⁾

정리하면, 시 143편은 악인으로 대표되는 고통의 상황에 둘러싸여 있는 한 의인의 구원 간구이다. 실제적인 범죄함과 그에 대한 회개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과 기도자 사이의 관계가 강조되어 있으며, 특히 탄원자는 어떠한 죄에 대한 회개나 고백을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39)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143: 8a) 언급과 관련하여 아침 제사와 제사장의 “구원 신탁”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제 2 성전 시대에 회당에서 선포되고 강론되었던 토라 읽기의 맥락과 더욱 관련이 깊다: Erhard S. Gerstenberger, *Psalms Part 2*, 425쪽.

40) S. Mowinckel, *The Psalms*, 12쪽.

41) E. S. Gerstenberger, *Psalms Part 2*, 426쪽.

42) Ph. S. Johnston, “The Psalms and Distress,” 78쪽.

43) H.-J. Kraus, *Theology of the Psalms*, 143-150쪽.

특별한 안내와 인도를 기대하고 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시 143: 10).

지금 시인의 관심은 죄와 회개에 있지 않다. 오히려 의로움과 공평함 (צדקה 미솔/uprightness)에 있다.

4. 시편의 죄 관념 재고

회개시로 불리는 시들 가운데 시 6, 102, 143 편은 죄의 용서에 대한 회개 기도보다는 고통의 상황으로부터 건져 달라는 구원 간구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무엇보다도 다른 회개시들(시 32, 38, 51, 130 편)에서 보이는 회개 의식과 죄의 고백, 그리고 죄의 도말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시편의 전통적인 죄-징벌의 도식이 해당시의 내용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다. 더군다나 시 143편의 경우 범죄함의 인정보다는 의로움의 주장이 부각되어 있다.

1) 전통적 회개시의 죄 관념

초대교회 이후 줄곧 이어져 내려오는 교회 전통은 제의 수요일(Ash Wednesday)에 꼭 이 시들이 회개시로 낭독되었음을 증언하고 있다.⁴⁴⁾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기독교의 신자들은 이 시편들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고백하며 죄 사함의 은혜를 체험했을까?

우리는 앞서 세 편의 시를 살펴보는 가운데 다음의 세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회개의 시라기보다는 구원을 갈망하는 기도문이라는 점이다. 세 편의 시에서 시인들은 하나같이 고통스러운 현실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육체적으로는 병약하고 영적으로는 피폐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 고통의 상황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의 한계성을 실감케 한다. 둘째, 그들의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의 성내심 또는 얼굴을 감추심에 돌리고 있다. 그러나 왜 분노하시는지, 왜 떠나가셨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다. 셋째, 세 편의 시는 똑

44) P. C. Craigie, *Psalms 1-50*, 91쪽.

같이 하나님 구원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끝을 맺고 있다. 그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품성, 즉 그의 긍휼히 여기심과 의로우심을 의미하는 사랑(ἔλεος)에 뿌리박고 있다.

위의 세 가지 공통점은 인간의 고통의 문제와 관련하여 각각 고통의 상황, 고통의 원인, 그리고 고통의 해결이라는 주제와 관련한다.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의 교리적 고백은 인간의 고통이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기에 시인이 당하는 고통의 현실이 곧 범죄함의 결과라는 전제가 깔리게 된다.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나 죄의 고백을 통하여 용서받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고통 또한 물러가고 행통의 삶이 보장됨을 기독교 신자들은 고백해 왔다. 바로 이러한 신앙적 반성과 전망 가운데 전통적인 회개의 시들이 읽혀져 온 것이다.

2) 구약성서의 죄론

구약성서 시대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이 들거나 가정적인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면, 이를 곧 그들이 범죄한 결과로 보았다.⁴⁵⁾ 건강한 삶과 조화로운 생활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שלום**(shalom/온전함, 완전함, 평화)을 뜻했다. 곧 하나님과의 막힘 없는 관계로서 그 분의 임재와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모든 삶에 있어서 형통한 의인의 삶을 의미했다(예, 시 1: 3). 그러나 고통이 찾아오는 현실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상태이다(예, 시 1: 4). 한 마디로 고통의 현실은 곧 하나님의 부재를 말한다. 왜 하나님이 더 이상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는가? 전통적인 신앙의 고백은 그 백성이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파기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People of the Covenant)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과 같이(like the nations) 살아갔기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떠날 수밖에 없다.⁴⁶⁾ 그리고 이 하나님의 떠나가심은 곧 그의 백성들에게는 심판을 의미했다.

이러한 구약 시대의 관념이 가장 극명하게 반영된 것이 바로 욥기이

45) J. Sklar, *Sin, Impurity, Sacrifice, Atonement: The Priestly Conceptions*, (Sheffield: Phoenix Press, 2005), 11쪽.

46) cf. B. W. Anderson,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 (New Jersey: Prentice Hall, 1998), 190쪽.

다.47)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통의 현실을 곧 욥이 범죄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한다. 그러기에 욥에게 회개를 종용한 것이다. 물론 욥기에서 고통의 원인, 곧 하나님의 부재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지만, 시편의 탄식시들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고통의 현실은 인간 범죄의 결과로서 이해되어 왔다.

발렌타인은 구약성서의 고통의 문제와 관련하여 죄의 문제와 분명하게 관련되는 본문들을 예언서와 지혜서, 그리고 신명기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인 시편의 탄식시들의 경우 죄의 문제와 명확하게 그 상관성을 제시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48) 린드스트룀과 같은 학자는 구체적으로 시 86편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죄와 고통과는 상관 관계가 없음을 논증하고 있다.49)

그러나 일반적으로 탄식시의 시인들은 여전히 죄와 고통의 문제를 구약성서의 일반적 이해의 맥락에서 바라본다. 물론 그에 따른 죄-징벌 도식의 예외적 상황 또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인과응보의 시각을 견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확실한 믿음 때문이다.50) 베스터만은 시인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관념은 그의 현상적 측면과 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한다.51) 따라서 굳이 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그의 고통의 상황에 대한 철저한 묘사는 자신의 연약성에 대한 인정이고, 확증인 것이다. 위의 세편의 시들에서 하나같이 고통의 상황을 하나님의 노하심이나 떠나가심 때문이라고 토로하면서도, 그 원인이 되는 특정한 죄목을 굳이 밝힐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분명한 것은 지금 하나님과 시인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평화가 깨어졌고 온전하던 삶의 조화가 사라져 버린 무질서와 고통의 상황만이 시인의 탄식시에서 반복되어지고 심화되는 것이다.

47) S. Mowinckel, *The Psalms in Israel's Worship*, 14쪽.

48) S. E. Balentine, *Prayer in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1993), 190-191쪽.

49) F. Lindström, *Suffering and Sin: Interpretations of Illness in the Individual Complaint Psalms*, (Stockholm: Almqvist & Wiksell International, 1994), 368쪽.

50) S. Mowinckel, *The Psalms in Israel's Worship*, 15쪽.

51) 클라우스 베스터만, 「시편 해설: 구조, 주제, 그리고 메시지」(노 희원 옮김), (서울: 은성, 1996), 97쪽.

3) 세 편의 시의 죄 관념

이러한 전통적 죄-징벌의 이해 도식으로부터 각 세 편의 시들은 교회 전통에서 이해되어 왔다. 시 6편에서는 떠나가신 여호와와 돌아오심에 대한 열망이 강조된다:

“여호와여 돌아와(קִּיְוָהּ) 슈바)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시 6: 4).

사실상, 시 6편에서의 이 시 6편 4절은 가장 주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구절이다. 시 6편 1절에서의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시고 더 이상 징계하시 말아달라고 하는 간구는 곧 ‘더 이상 떠나가지 마시고 이제 돌아와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중심 기도의 서두에 불과한 것이다. 이 시 6편 4절의 간구를 중심으로 그 전후에 시인의 고통의 현실이 열거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부재의 상황이 시 6편에서는 “하나님의 떠나심”으로 표현되고 있다면, 시 102편과 143편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신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회 내게 응답하소서”(시 102: 2).

이 시 102편의 간구는 단지 시인의 “괴로운 날”에 마땅히 도와주셔야 할 하나님이 잠잠히 계신 절망적인 현실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주의 얼굴을 숨기셨기에” 시인에게 괴로운 날이 시작된 것이다. 이윽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현상이 시 102편 10절에 드러나고 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시 102: 10).

따라서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는 탄원은 곧 ‘주의 심판과

징계를 멈추어 주소서'라는 소극적인 기도를 넘어서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상태인 궁극적인 평화에 대한 회복을 소망하는 간구인 것이다. 시 143편 역시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지 마시기를 소원하고 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 하나이다”(시 143: 7).

이 본문 7절을 중심으로 하여 그 전후에 시인의 고통받는 상황과 소망을 서술함으로써 하나님의 얼굴의 숨김 여부가 그의 현실 삶이 “무덤”(7절)으로 향하느냐, 아니면 “공평한 땅”(시 143: 10)으로 향하느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한결같은 결과는 인생의 고독과 고통의 현실이다. 하나님 부재의 원인으로서는 시인이 실제로 범죄했는가 안 했는가는 더 이상 주목할 일이 아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다루는 세 시편의 시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일식(eclipse of God) 현상의 공포이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אהבה)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혼돈의 상태이다. 세 편에 시들이 회개의 시라기보다는 구원을 위한 간구로 나타나는 것은 구원받는 일, 곧 고통의 해결이 곧 하나님의 돌아오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근원적인 인생의 문제는 해결된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간은 평화를 획득한다. 그 관계 회복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אהבה)과 의로움(צדקה)에 있다. 인간은 단지 하나님의 본성을 의지하며 간구할 뿐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세 편에 시에서 죄론이 다른 회개시들(시 32, 38, 51, 130편)의 전통적 죄-징벌 도식의 죄 관념에 비하여 더욱 근원적인 인간 실존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단지 악행을 범하고 범하지 않고의 차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실제적인 현실 생활의 모든 영역이 관련되어 있는 총체적인 삶의 문제이다. 따라서 회개의 문제 역시 단지 교리적인 고백이나 윤리적인 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폭적인 의지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People of Covenant) 살아가는 자의 온

전한 평화(οἰσῆ)에 이르는 길임을 알 수 있다.

5. 나가기

교회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일곱 편의 회개시 가운데 본 논문에서 살펴본 세 편의 시는 교리적 이해와는 상이한 죄에 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죄-징벌” 또는 “고통-죄의 결과”라는 도식에서 벗어나 있으며, 구원 간구의 동기에 있어서도 특정한 개인적 죄목에 대한 회개라기보다는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루고 있었다. 즉 시인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얼굴 감추심의 현실에서 끊어졌던 관계가 하나님의 돌아오심으로 인하여 회복된 관계에 대한 고백이 바로 시 6, 102, 143편에 담겨 있다.

세 편의 시에서 시인들은 죄목을 일일이 아뢰고 용서받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기에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실존은 너무도 고통스럽고 급박한 것이었다. 그들의 삶의 철저한 변화가 그들에게는 필요했다. 단지 몇몇 윤리적인 항목이나 율법적인 세목을 고쳐서 해결되는 그러한 유형의 삶의 정황이 아니었다. 인간의 실존적인 연약성으로 인하여 떠나가신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는 인생의 결국은 음부였다. 그들의 구원 간구는 이제 떠나가신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되느냐, 아니면 저주받은 이방의 낙오자처럼 살게 되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의 문제였다. 시인의 삶의 명멸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의존 여부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이를 위해 시인은 먼저 자신의 삶을 모두 드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했다. 우리에게 들리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라는 기도는 계약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다시금 “주의 종”으로서 있는 자의 간구이다.

6. 참고문헌

구 덕관, 「구약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정 현진, “시편 제 4집에서 본 시편 102편: 믿음으로 찾아낸 허무한 인생과 충만한 인생의 균형,” 김 영일 등, 「시편: 우리 영혼의 해부학」 (서울: 한들출판사, 2006).

함 성국, 「시편 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 Allen, L. C., *Psalms 101-150*, (Waco: Word, 1983).
- Anderson, B. W., *Out of the Depths: The Psalms Speak for Us Toda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0).
- _____,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 (New Jersey: Prentice Hall, 1998).
- Balentine, S. E., *Prayer in the Hebrew Bible*, (Minneapolis: Fortress, 1993)
- Craigie, P. C., *Psalms 1-50*, (Waco: Word, 1983).
- Dahood, M., *Psalms I 1-50*,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Inc., 1982).
- _____, *Psalms III 101-150*,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Inc., 1983).
- Flesher, Le. Sn., "Sin and the Psalms," *The Living Pulpit* 8 (1999), 11-14쪽.
- Gerstenberger, E. S., *Psalms Part 1 with an Introduction to Cultic Poetr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8).
- _____, *Psalms Part 2 and Lamentations*,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1).
- Johnston, Ph. S., "The Psalms and Distress," D. Firth/Ph. S. Johnston (eds.), *Interpreting the Psalms: Issues and Approaches*,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05).
- Kraus, H.-J., *Psalme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 _____, *Theology of the Psalms*. tr. K. Crim,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6).
- Lindström, F., *Suffering and Sin: Interpretations of Illness in the Individual Complaint Psalms*, (Stockholm: Almqvist & Wiksell International, 1994).
- Mays, J. L., *The Lord Reigns: Theological Handbook to the Psalm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 McCann, J. C., *A Theological Introduction to the Book of Psalms: The Psalms as Torah*,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 Mowinkel, S., *The Psalms in Israel's Worship*. tr. D. R. Ap-Thomas, (Sheffield: JSOT Press, 1992).
- Seybold, K., 「시편 입문」 (이 군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Sklar, J., *Sin, Impurity, Sacrifice, Atonement: The Priestly Conceptions*, (Sheffield: Phoenix Press, 2005).
- Tanner, Beth LaNeel. "Preaching the Penitential Psalms." *Word and World* 27 (2007), 88-98쪽.
- Weiser, A., *The Psalms*. tr. H. Hartwel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2).
- Westermann, C., *The Praise of God in the Psalms*, K. R. Crim 옮김, (Richmond: John Knox Press, 1965).

_____, 「시편 해설: 구조, 주제, 그리고 메시지」 (노 희원 옮김), (서울: 은성, 1996).

검색어

시 102편

시 143편

시 6편

시편의 죄

회개시

투고일: 2009년 7월 1일

심사일: 2009년 8월 23일

게재확정일: 2009년 9월 11일

A Reconsideration of the Concept of Sin in Psalms 6, 102, and 143

Keun-Jo Ahn, Ph. 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Hoseo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for the concept of sin in Psalms 6, 102, and 143. These psalms are among the seven 'penitential psalms' in the tradition of the Christian Church. Surprisingly, they do not express any explicit confession of sins or sense of contrition, while other psalms do include elements of penitence.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theological scheme of 'sin-punishment' or 'suffering-result of sin' in the Old Testament, each psalm has shown that the relationship of God does matter rather than particular sins or sufferings. Psalmists cry out to the Lord in the desperate state of the eclipse of God. We do not know the reason of God's hiddenness from the psalmists. It would be the sin of the people. Yet, the essential problem of the three psalms is not related to sinful deeds of human being but indifferent departure of God. The three psalms commonly implore God to come back. God's return should be made because of God's covenantal love(חַסֵּד) and righteousness(צְדָקָה). Only thing that the psalmists can do in their existential agony is to depend God's

nature so that they may rebuild the covenantal relationship with God.
This paper contributes to calling our attention to the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from the dogmatic emphasis of guiltlessness with regard to the concept of sin.

Keywords

Concept of Sin
Penitential Psalms
Psalm 6
Psalm 102
Psalm 143